

S#1. 고향, 집(낮, 실외)

여름의 초입, 한적한 시골 동네. 바람에 나무 살살 흔들리고 멀리서 들리던 자전거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 끼익- 멈춘다. 내려서 자전거 세워 두며 편지봉투 몇 장 집어 든다.

집배원 편지요!(우렁차게)

단단한 흙바닥 걷는 소리. 문이 킁 열리며 중년의 여자가 급한 발걸음으로 뛰쳐나온다.

어머니 네! 네! 나가요!

집배원 어유, 그렇게 재촉하시더니 이제야 왔네요. (편지를 내민다)

이름 보고선 이 집부터 제일 먼저 왔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큰 아들 만주로 학교 보내고 통 소식을 못 받으니.

하소연 할 곳이 따로 있어야 말이지요!

집배원 암요. 자식 둔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작은 애들이 통 조용하네요.

어머니 아침 일찍부터 산딸기 따러 가겠다고 끼니도 거르고 뛰쳐나갔지 뭐예요.

줄지어 형 뒤통무니 쫓아다닐 땐 언제고 말이에요.

집배원 (호탕하게 웃으면서)글공부는 형 없으니 재미도 없나보네!

아! 편지 얼른 읽고 싶으실 텐데! 저는 이만 가 볼게요.

꾸벅 인사를 하고 자전거에 올라타는 집배원. 자전거 바퀴가 땅을 가로지르며 금방 멀어진다. 자전거 소리 멀리 들리다 사라지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꼭 쥐고 집으로 들어가는 어머니.

S#2. 고향, 집 (낮, 실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문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는 어머니. 손에 쥔 편지를 다시 들어 올려 보낸 이의 이름을 쓰다듬는다. 버선발 한걸음 내딛으며 자리에 앉는다. 적당히 도톰한 두께의 봉투 끝부분을 찢어 부스럭부스럭 편지를 꺼낸다. 살짝 떨리는 손, 봉투보다 알브스름한 종이가 양손에 들린다.

<편지 전문, 아들 하현의 독백>

(쉬어 가는 구간마다 만년필 소리가 깔림, BGM)

그리운 고향의 식구들!

만주는 해방을 꿈꾸는 뜨거운 심장들의 공명으로 소란입니다.

이 편지가 도착할 무렵에 저는 총 드는 법을 배우고 있을까요. 이 문장을 쓰고 있는 지금 밤하늘이 유독 아득하게 보입니다. 달을 유심히 보다가 음력 날짜를 세어보니 하현달이더군요. 만주의 하늘도 저를 환영해주는 것 같아 신나는 밤입니다.

저 하늘은 분명 한 개인데 신기하게도 이곳은 전혀 다른 세계 같습니다. 분명 기다란 바람이 이어져 뺨을 스칠 텐데 고향과 전혀 다른 촉감을 느낍니다.

어머니!

지난날을 떠올리면 세상이 전부 거짓말만 같습니다.

뛰약별 아래 계곡물에 떠 감던 소년들의 웃음이 그립습니다. 골방에 틀어박혀 책장만 넘기던 순간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어수룩한 과거의 나와 나누는 작별인사이기도 합니다.

울보였던 어린 꼬마는 잊어주십시오. 용감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려 합니다. 등을 밀어주신 손의 온기로 열정에 불을 지필 것을 맹세합니다.

이곳은 첫날밤이라 그런지 유독 잠 못 이루는 소년들의 눈동자가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개

중에 별똥별 같은 눈물을 흘리는 녀석들도 여럿 있습니다. 고향에서 받아온 편지를 품에 안고 뒤척이느라 밤새 바스락 거리는 녀석도 있습니다.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는 마음만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사내아이가 모였다는 게 놀랍고도 몽클합니다.

쉽지 않음을 알지만 이렇게 모인 사내들을 보고 있노라면 독립이 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는 어린 마음도 듭니다.

슬슬 망종이라 태양 별도 달아오르는지 집회마다 쓰러지는 아이들이 제법 보여요. 저는 집을 떠난 길목부터 잘 먹고, 잘 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걱정은 접어 두셨으면 합니다. 오는 길에도 저보다 덩치 큰 아이들보다 두 배는 산을 잘 올랐습니다. 고향서도 원체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말들이 절실히 고픈 심정이시리라 생각하여 조금 채워봅니다.

하루라도 빨리 고향의 땅을 두 발로 딛고 서려면 열심히 무술을 익혀서 싸우고 저항해야만 하겠죠.

믿고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던가요?

동생들은 잔소리꾼 형의 빈자리를 허전하게 여기던가요?

누구든 저에 대해 묻는다면 안부 전해주세요.

이제부터 인문 공부와 군사 훈련을 받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 같지만, 틈이 나는 대로 글을 모아 편지 하겠습니다.

유월의 초입, 만주에서 당신의 아들 하현으로부터.

S#3. 고향, 집 (낮, 실내)

편지를 고이 접어 현이 쓰던 책상 위에 내려 두는 어머니. 서랍을 열어 종이와 펜을 꺼낸다.

어머니 현아. 편지 잘 받았다. 걱정은 한시름 덜게 되었구나. 네가 첫 편지를
쓰

던 날의 기억을, 마음을,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만년필 소리와 함께 페이드 아웃